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1호 [루게 제24604호] 주체103(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7월의 이 강산에 차넘치고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생전의 념원인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강력한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우리 혁명무력의 불타는 전투적열의가 천리방신을 뜨겁게 달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하시면서 전략군부대들이 앞으로 오 날 진행한 실전과 같은 훈련들을 통하여 로켓부대들의 준비를 더 한층 강화하며 즉각적인 발사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광증을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제압해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이번 발사 훈련은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실전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하여 불의적인 기동과 화력타격을 배합하여 진행되였다. 황병서동지, 박정천동지, 윤동현동지, 홍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상장 김락겸동지를 비롯한 전략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현지에서 전략군 참모부가

작성한 발사계획, 설정된 비행궤도와 목표수역분쇄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전술로켓발사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순간 어두운 장막을 깨고 대지를 밝히며 솟구친 전술로켓들이 조국사랑과 원수증오의 일념으로 응축되었던 천둥같은 폭음을 터트리며 제정된 목표를 향하여 창공을 기운차게 헤가르기 시작하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이번 전술로켓발사훈련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의 전술로켓들의 명중성과 전투적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으며 긴급정황발생시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투행동질서와 화력임무가 정확히 규정되고 각이한 적목표에 따르는 사격방법이 완성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 전술로켓발사훈련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신속한 기동과 배합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략군의 싸움준비와 주체적인 로켓전법을 적용하는데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량하고

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천금같은 말씀을 명심하고 언제나 타격의 시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 만단의 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는 것으로써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전병호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병호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7월 9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에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 혁명적 원칙성과 소박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전병호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시고 따듯이 위로해 주시였다.

본사기자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전병호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육군대장이며 조선인민군 무장 9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장비관 명예판관인 전병호동지의 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만나 에오프세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기르گز스판의 비슈아출판사에서 6월 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나 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를 브라질주제사상연구 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금속 및 기계총회사와 물공사설계 및 감독기업소에서는 좌담회가, 기네 피나크리시 알마미아지 1호건설장에서는 독보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사진, 도서전시회가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 도서전시회 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여져 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에티오피아 금속 및 기계총회사 책임설계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혁명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인이시다. 그이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인류의 념원을 반영한 것으로 하여 진보적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영원 불멸할것이다.

기네 피나크리시 알마미아지 김일성주석을 회고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이다. 말레이시아 하모니러행 사장은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분이다. 조선의 현실은 주석께서 참으로 훌륭한 정치를 펼치시였으며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시였는가를 잘 보여주었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단결된 인민을 기우신 주석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은 김정은각하의 명도밑에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 사상과 명도, 풍모에서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전집》 제7권 출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전집》 제7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52(1963)년 8월부터 주제 53(1964)년 3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담화, 결론 등 98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어있다.

고전적로작들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가장 독창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주신 절세위인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가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정치가이시》, 《당과 수령에게 끌렸어 충실한 혁명가가 되자》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반영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과학적인 정치학을 정립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라는 데 대하여 밝히시였으며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인식하고 그이를 높이 받들어모시게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 미땅히 지녀야 할 혁명적의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 《당의 출판보도들은 충실성교

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에서 우리 당출판 보도를 특히 세 세대들속에서 진행하여야 할 계급교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주체혁명명령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김일성군사대학앞에 나서는 교양에 대하여》, 《해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병기수리공장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등의 로작들에는 인민군대강화와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선진관철을 위한 강령적과업들이 폭넓게 반영되어있다.

로작들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무장장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따라배워 언제나 앞장에서 군인대중을 참담게 이끌어갈데 대한 사상을 담고있다.

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연계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과학성정당성을 경제학적견지에서 완벽하게 론증하시였다.

평안남북도도 황해남북도도 비롯한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발표하신 로작들인 《열두 삼천리밖에 어려운 수령님

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황해남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이다》 등에는 우리나라 농촌건설의 위대한 앞길이 명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 《사회적책이 나아가길 밝힌 강령적지침》, 《자연과학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데 대한 문제를 옳바로 리해할데 대하여》 등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학생들에게 주체적립장을 선행한 실들을 정확히 분석하며 우리 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과학연구사업을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일관한 대외정책을 밝힌 로작들이 전집에 수록되어있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며 민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주체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민족음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이며 완벽한 해답을 준 로작들이 편집되어있다.

《김정일전집》 제7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어있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로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사설

지원의 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조선혁명은 깊고도 역센 뿌리와 전통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인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2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형직선생님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지원의 사상을 제시하시고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신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역사를 펼치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다.

1894년 7월 10일 만경대의 애국적가정에서 탄생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김형직선생님에 의하여 전통을 겪고 있던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자주적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도 지원의 사상이 구현되어있으며 수령님의 손길에 마련된 이 땅의 모든 고귀한 재부름마다에도 김형직선생님께서 바라시던 념원이 깃들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지원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더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통남산마루에서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나갈 역사의 명세를 다지신 그때로부터 장장 수십년상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불멸불굴의 로고를 바쳐오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계속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으로 자라나고 온 사회가 하나의 동지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으며 선군정치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지원의 사상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창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정판이며 대를 이어 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여기에는 혁명가의 가장 리상과 투쟁목적,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이 집대성되어있다.

세월은 흘러 세기는 바뀌고 세대는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우리 혁명은 언제나 지원의 사상과 함께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도 지원의 사상이 구현되어있으며 수령님의 손길에 마련된 이 땅의 모든 고귀한 재부름마다에도 김형직선생님께서 바라시던 념원이 깃들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지원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더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도 지원의 사상이 구현되어있으며 수령님의 손길에 마련된 이 땅의 모든 고귀한 재부름마다에도 김형직선생님께서 바라시던 념원이 깃들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지원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더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숭고한 사상은 오늘의 새로운 주체 100년 대에도 꽃같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주체혁명의 계주봉을 역세로 틀어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결출한 명도자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준엄한 혁명의 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신것처럼 역사의 생애를 헤쳐오신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가고계신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으로 높여 줄 것을 해치시며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가고계신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으로 높여 줄 것을 해치시며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가고계신다.

역사와 전통의 확고부동한 계승속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슴속에 간직하여야 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인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수난의 시기에 지원의 사상을 제시하신것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적에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천체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불굴의 의지, 정력적인 명도로 지원의 사상을

명도로 구현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만경대혁명일가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이 땅위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신념과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마다에 꼭 차려져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지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일제놈들과는 끝까지 싸우고 한몸바쳐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결사옹위해은 역사로 빛나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사명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원수님들께서 계시어 우리의 자주적인 삶과 미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억척변변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의 대업을 이룩해 나가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최대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 누구나 《E. C》의 열혈투사들처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과 1970년대 당의 기초조직시기 일군들처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자기 수명, 자기 명도자와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합한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만경대혁명일가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이 땅위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신념과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마다에 꼭 차려져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지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일제놈들과는 끝까지 싸우고 한몸바쳐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결사옹위해은 역사로 빛나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사명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원수님들께서 계시어 우리의 자주적인 삶과 미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억척변변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의 대업을 이룩해 나가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최대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 누구나 《E. C》의 열혈투사들처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과 1970년대 당의 기초조직시기 일군들처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자기 수명, 자기 명도자와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합한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만경대혁명일가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이 땅위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신념과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마다에 꼭 차려져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지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일제놈들과는 끝까지 싸우고 한몸바쳐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결사옹위해은 역사로 빛나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사명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 누구나 《E. C》의 열혈투사들처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과 1970년대 당의 기초조직시기 일군들처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자기 수명, 자기 명도자와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합한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만경대혁명일가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이 땅위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신념과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마다에 꼭 차려져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지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일제놈들과는 끝까지 싸우고 한몸바쳐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결사옹위해은 역사로 빛나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사명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 탄생 120돐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중 앙 보 고 회 진 행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 탄생 120돐 기념 중앙보고회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김형직선생님의 초상화가 붉은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보고회장에는 또한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은 길이 빛나리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당, 무력, 정경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내무군장병들, 혁명사적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 일군들, 공로자들, 혁명렬사유가족

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혁명사적부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보고회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 김덕훈내각부총리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정경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혁명사적부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보고회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가 보고회를 하였다.

보고회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가 보고회를 하였다.

와 업적을 빛내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보고회는 《높이 들자 붉은기》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지원의 숭고한 뜻 길이 빛내리

청수혁명사적지를 수많은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외국인들 참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20돐을 맞으며 청수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작주군에 있는 청수혁명사적지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 1(1912)년 여름부터 주체 10(1921)년 가을까지 여러차례 들리시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뜻깊은 곳이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121만 7 000여명의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외국인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의 아버지(지원)의 뜻을 일생의 모범으로 삼았다.》

참관자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민족의 시기를 생생히 기억하며 무신혁명의 사상을 천명하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가슴속에 반일투쟁정신을 심어주시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관

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청수동회의장소와 반일강연장소, 동지들을 바래우신 곳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역사의 새벽길을 걸으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반일지하혁명조직과 무장대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크나큰 실험을 기울이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모습은 언제오든것만 같아 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톨리도르교양에 치중하던 학교교육내용을 바로잡아 주시고 학생들에게 나라찾을 큰 뜻을 키워주신 일신학교, 몸소 붕이름을 지어주시고 등산정기

까지 조직하신 결승봉 등을 보면서 선생님의 헌신의 로고를 되새겨보았다.

참관을 통하여 그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던 조국해방과 통일전쟁의 숭고한 뜻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의하여 어떻게 빛나게 실현되었는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참관자들은 무한한 조국애, 민족애로 충만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생애와 지원의 숭고한 뜻을 길이 빛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어야 할라는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갈마식료 공장조업준비를 다그쳐 끝내자

공장건설돌격대원들과 원산시 근로자들의 쉼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저한 뜻을 받들고 갈마식료 공장건설돌격대원들과 원산시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이 9일에 진행되었다.

박정남 강연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원도회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 일군들, 갈마식료 공장건설돌격대원들과 원산시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박정남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인민위원회 사무장 배명식, 공장지배인 김기철, 공장건설돌격대 련장장 리창국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갈마식료공장을 찾으시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물고기가공기

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미는데 대한 현저한 뜻을 받들고 갈마식료 공장건설돌격대원들과 원산시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이 9일에 진행되었다.

공장의 내외부를 손색없이 꾸리고 당에서 마련해준 현대적인 장비 및 가공설비들의 운영과 관리를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맛과 질이 최상인 수산물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장에 대한 현저한 뜻은 나라의 수산물가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투철한 수명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지니고 생산현장의 위생안전정신을 철저히 보장하며 공장의 안팎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멋있게 꾸리고 오수정화장을 비롯한 모든 대장공사에서 기적적 창조를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건을 엄격히 지켜 모든 건설물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마무리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은 나무심기와 지대정리 등 전반적인 공사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어 진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주체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남흥청년화학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중 권

해외연고자가족들을 위한 위로연이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연고자가족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위로연이 9일에 있었다.

위로연에는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용화동지의 가족일행,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주위, 류통사, 손명인, 범덕림, 강자화, 상활가족일행들, 채세영, 오진일가족들, 재중항일혁명투사들인 서순옥가족, 리재덕가족 일행, 재중항일혁명렬사들인 박길송, 김철가족들,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순옥, 리관린가족일행들, 재로씨야동포 정일섭, 해외연고자 손원태가족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정일당중앙위원회 당령사연구소 소장, 관계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로연에서는 김기남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연고자가족들을 위하여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기 항일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류매일이 간고한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면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것으로 하여 만민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한없이 고결한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하던 항일투쟁시기 자신과 인연을 맺으셨던 혁명전우들과 그 유가족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그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연고자가족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랑과 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었으며 오늘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뜨겁게 이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본사기자

우리 혁명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민족자주의 기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20돐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2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력사의 이념을 맞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는 찬란한 민족의 가슴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설레어가고있다.

1894년 7월 10일 만주국의 애국적가장에서 탄생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철심판에 올랐던 민족자주의 시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룩한 위대한 뜻을 안으시고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었다.

32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한생을 불같이 사시며 조국과 민족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생애는 열렬한 애국자, 건결한 혁명가의 영웅으로서 빛나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사에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업적에서 특별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것은 지원의 사상이다.

조선의 독립운동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여 동진 진통을 겪고있던 때 김형직선생님께서께서는 우리 나라 독립운동의 진로를 명시한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었다.

지원의 사상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애의 대를 이어 싸워오라 도 기여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색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지원의 사상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한 민족중시사상과 나라의 독립은 오직 민족자력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투철한 자주독립사상 그리고 민중이 총칼을 들고일어나 나라도 찾고 새 사회도 일떠세우는 무산혁명론을 해 하신다는 사상이 체현되어있다.

지원의 사상은 그 진리성과 생활력으로써 하여 일제의 총칼밑에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민족자생의 희망을 안겨주는 해탈로 되었을뿐 아니라 대를 이어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추동하는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혁명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겸손,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대를 이어 싸워오라 도 기여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불굴한 맹세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압록강의 맹세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찬란히 꽃피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통남산의 맹세로 빛나게 이어졌으며 오늘 는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로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지원의 사상은 우리 혁명을 힘있게 떠밀어준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지원의 사상을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받아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시는 과정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민족중시사상을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간직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혁명을 일으키는 주동하는 기동력이라고는 판점을 새우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부터 혁명을 시작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원의 사상에 담겨있는 자주독립사상과 무산혁명론을 해 하신다는 사상에 힘입어 혁명의 원리들을 모색해나가지었다.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는 지원의 사상이 체현하고있는 자주독립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지고 정립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0대의 어린신 나이애 벌써 김형직선생님의 리념도 포함되어있는 《고. 2》의 강령에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한 다음 우리 나라와 나아가서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를 최종목적으로 새겨넣으시어 선군사상의 시원을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구한 혁명투쟁의 나날 지원의 사상을 되새기시며

힘과 용기를 더욱 북돋으시었고 강도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고 마침내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우리 조국땅에 시련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20년전의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서는 지원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었다고, 지원의 사상은 수령님의 대를 거쳐 나의 대에 이르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면서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지원의 높은 뜻을 더욱 가슴속깊이 새겨안으시었던 날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41(1952)년 7월 10일이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58돐이 되는 뜻깊은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할아버님께서서 내오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어떤 내용을 담겨져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시에 지원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장군님의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고 계국주의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자루의 권총을 장군님께 넘겨주시며 혁명의 계주봉을 맡고 받는데가 좋겠다는 뜻을 말씀하시었다.

일출수 없는 그날 총대중시의 절리를 걸어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명공포모를 체득하시면서 선군명령으로 성장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명령 주제 105명곡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대전적전과 빛나는 계승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었다.

지원의 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더욱 뚜렷이 표시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교묘한 살책동이 극도로 탈락되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승리의 패일을 대한 확신과 사색결단의 의지로 끝까지 선군의 강령군기를 뜻있게 헤쳐시었다.

인 제인 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끝없이 변명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려며 그 어떤 난관도 달여가며 일하고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패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것입니다. ...

혁명가의 삶의 지향과 목적, 혁명위업 계승의 심오한 진리가 비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패일에 대한 진정한 인생관은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이였다.

선군혁명전선리선에 굳어진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지 이 세상에 없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철의 담력과 배정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셨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역사적 계승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음속으로 부르시던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하고 이 길을 가고자라라는 노래의 구절은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넘치는 혁명열기 그대로였다.

나는 패일을 위하여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인락을 바라지 말자, 동무들, 강성국가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 함께 부러가 되자! 라고 하시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앞장서 헤쳐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더욱 뜨겁게 새겨진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된 지원의 사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우리 혁명을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의 두로로 정식화하시어 우리 혁명이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전진하도록 혁명하게 명도하고계신다.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명도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명랑부활한 지략을 더욱 완벽히 겸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을 강력한 전쟁역력을 가진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더욱 치열한 반미대결전에서 원전전승의 자랑찬 역사를 수놓아가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었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애국헌신의 숭고한 뜻을 김일제국주의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께서 경계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명도하고계신다.

천만군민은 송고한 전우판, 인민판, 미배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정으로 이어지고 우리 혁명대오는 억척불변의 혼연일체로 더욱 굳건히 다져져 혁명의 최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생을 바쳐 지켜오신 지원의 사상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며 계승되고있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 내오신 지원의 사상은 우리 혁명의 새 역사를 자랑스럽게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조선의 귀중한 보물고 창추혁명위업이 새기를 이어 승승장구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혁명유산이다.

천만군민이 지원의 사상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위대한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봉화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정순애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 해외연고자가족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업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주요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 해외연고자가족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김일성주석을 깊이 추억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적혀져있다. 한편 해외연고자가족들은 대산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점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만경대교향집 사립문앞에 서니 해외 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랑을 금할수 없다. 재중동포들은 이번에 우리 총련합회에서 주최한 회고음악회를 통하여 수령님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인종의 위인이심을 다시 금 계부로 절감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보건시책속에 우리는 행복

각지 독자들이 보내여온 편지를 보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크나큰 혜택속에서 병치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사는 행복찬 인민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담은 편지들이 본사편지국으로 계속 오고있다.

얼마전에 받은 편지들에는 돌우에도 꽃을 피울 뜨거운 정성을 안고 우리 시대의 의료인들께서 발휘한 아름다운 소행과 함께 고마운 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기쁨넘친 목소리가 실려있었다.

평천구역 료1동에서 사는 72살 난 김금주녀성은 몇달전 어느날 갑자기 집에서 정신을 잃었다. 동보와 받고 즉시 달려온 평양시구급병원 의료인군들에 의해 구급대역이 세워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환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는것을 알고 최근 길에 올랐던 의료인군들까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다.

의료인들은 밤을 새워가며 협의를 거듭하면서 긴급치료를 연한군상업관리소 로동자 최영복동무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군안의 전정로병들을 전부보치려던 중경하고 그들의 생활을 극진히 돌봐주어 군안의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상판매달이던 10년전 어느날이었다. 읍지구의 전정로병들에 대한 상공공급사업을 하고있던 최영복동무는 한 로인에게 눈길이었다. 다른 집들에서는 젊은이들이 왔는데 나이많은 로인이 상공을 받아달라고 상점문을 나서는 것을 보니 어쩔지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의 아버지도 전정로병이었다. 얼마보니 자식이 없는 로병은

담당의사였던 지철용선생님과 간호원 김명숙동무는 차안에서 여러가지 구급대책을 세우며 신심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리장장외과장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인군들은 퇴근을 뒤로 미루며 절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인차 수술장에 들어섰습니다. ...

한 생명을 위하여 직숨기가 날도 달리던 열차가 멈춰서는 불라는 사실들에 대하여 전제들을 매다다 감동이 컸던 그였지만 직접 체험하고보니 그 여운은 실로 깊은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편지에서 두번이나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인군들의 정성이 얼마나 뜨겁고 헌신적인가를 잘 알게 되었고 하면서 이는 오직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에서만 꽃피울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라고 뜨겁게 되하였다.

병을 봐주고 병을 보이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친혈육처럼 하나의 혈연적누대며 그 어떤 뛰어난 치료대법들이 토의되었습니까. 일반의치의 사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치료를 맡았고 며칠후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황철호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인군들이 며칠밤 새워가며 치료방법을 새워가며 치료방법들을 연구하고 여러차례 검진을 진행한 기초우에서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수술 후 김점숙리실의 의료인군들 3일동안 아이들의 상태를 긴장하게 관찰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열을 다 바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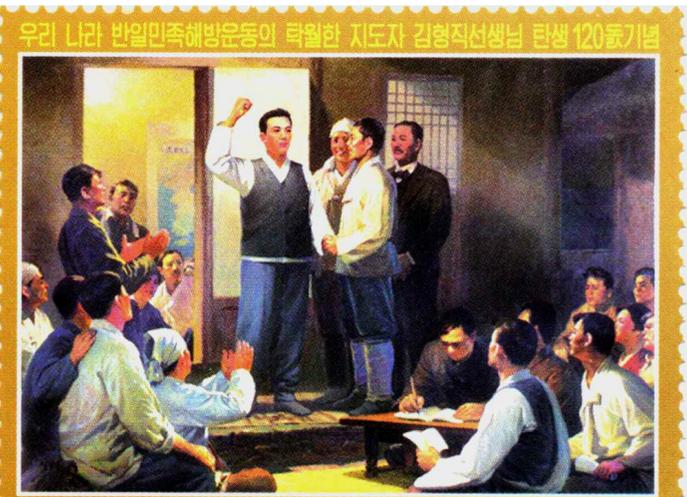
우리 부부는 늘 그늘이 짙었던 아버지의 얼굴에 방심된 웃음을 보면서 이것이 행복 꿈이 아닌 현실임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도 고칠수 없었던 아이들의 병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세상에 부러운 아동병원에서 자식의 병을 고친 자기들의 마음속진정을 이렇게 타치었다.

《얼마나 멋있고 회한한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부부는 꼭 꿈을 꾸는것 같았습니다. 의료인군들이 아들과 우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최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믿을 직하게 담보해주는 보건제도가 있고 정성을 체질하고있는 의료인군들이 있기에 내 조국땅 가서는 꽃바다에서 인간사랑의 아름다움 화폭이 더 활짝 펼쳐지리라는 확신이 차념치고있었다.

본사기자 김옥별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탄생 120돐 기념 우표 발행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탄생 120돐 기념



아크릴화 《청수동 밤골 회의를 지도하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조선우표 DPR KOREA 주제 103(2014) 50 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탄생 120돐에 즈음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새 우표(개별우표 1종)에는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의 리념을 안아오신 선생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내용을

담은 아크릴화 《청수동 밤골 회의를 지도하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 형상되어있다.

지원의 사상을 혁명의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조로 삼으시고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은 생애를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우표는 선생님의 혁명적 인생관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국민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 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주제 6(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서 결성된 조선국민회는 로동자, 농민, 교원, 학생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을 망라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널리 뻗어나간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또한 그 구성과 조직체계, 활동준칙이 대단히 치밀하게 짜인 비밀결사였다. 당시로 말하면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인연한 사람들은 지하활동에 가담할 엄두조차 내

지 못하던 시기였다. 뜻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어찌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여 이리저리한 반일단체들을 찾는 정도였다. 이런 때에 조선국민회가 평양에서 태어났고 온 나라만이 아닌 국외에까지 퍼져갔던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나라 력사의 한페이지에 당당히 새겨질 만하였다.

조선국민회가 우리 조국의 력사에 그토록 뚜렷한 자욱을 새기고있는것은 그대만만이 아니다.

조선국민회가 반제자주적인 혁명조직으로 될수 있었던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가장 투철한 반제자주적정당과 관련되어있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 2》를 결성하시던 때를 회고하시면서 조직을 못는 마당에 정작 나서고보니 왜 그런지 돌아가신 일제의 사관들이 지휘활동에 가담할 엄두조차 내

어머지는 조선국민회를 무으려고 여러해동안 수만리길을 걸으며 서방에 출어쳐있는 동지들을 결속하였고 국민회를 내는 위에는 그 리념을 실현하기 위해 한생을 강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시었다고, 우리가 내오게 된 조직의 강령에는 아버지의 리념도 포함되어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리념은 그대로 조선국민회의 목적이기도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조선국민회가 내세웠던 단결의 사상, 민족자주의 사상은 그 후 조선혁명의 시원인 《고. 2》의 강령의 뿌리로 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도 우리 혁명발전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국민회 생각이 떠올랐다고

전 광 남

여친 딸이 되어

물자들을 집까지 가져다드리겠습다.》 그때부터 최영복동무는 당에서 그처럼 이기고 내세워주는 전정로병들을 위하여 생심정성을 다하였다.

그는 명절마다 로병의 생일 때에 색다른 음식과 여러가지 보양제를 안고 찾아가 로병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고 어느해 초겨울에는 두툼한 솜옷도 마련 해주었다.

또한 그는 읍에서 살고있는 김순일전정로병을 비롯한 여러명의 로병들을 친할이 된 심정으로 적극 도와주었고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도 전정로병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도록 떠맡아 이끌어주었다.

특근기자 김천일

